

△ 격려사 △

山마루가

그리워

.....창간호에 부쳐서.....

校長 李 東 旭



깊은 山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흔히 숲 속의 희미한 길을 찾아서 깊은 데로 깊은 데로 들어가다가 종래는 길을 잃고 조나을 하여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일이 있음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등산을 잘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山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을 다하여 山 봉우리로 높이 올라가 방향을 잡은 후, 그 올바른 방향을 山 꼭대기 길을 따라서 가야만 짐줄되지 않는다 고 합니다. 山 위에 높이 서서 못 山 봉우리를 굽어보며 머리 위에 회화히 빛나는 태양을 저 침삼고 그 大自然속에 안식하고 자신을 맡겨버리게 되면 그 두렵던 山도 그 무지무지한 山 골

짜기도 그에게는 정복의 즐거움과 휴식의 安息처가 된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마치 산골짜기 숲속에서 영경위의 寧靜에 걸터서 영기영기 기면서 질식할 듯한 압박감과 절벽 앞에 서 있는 듯한 절망감에 앞길의 막막한 세대 속에 갇혀 있는 듯이 느껴 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허공에 손을 들고 허우적거리며 비를거리는 말거름으로 그 어디를 가보려고 희미한 한낱 길을 찾아서 이리 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창이요, 기맥은 진하였읍니다.

갈 길은 막혔고 온 길은 잊었읍니다. 숨쉴듯한 이 순간에도 희미하게 떠오르는 오만가지 망상이 악착같이 五관을 흐리게 하여 주고 있읍니다. 우악 에스컬 천지자는 이 골짜기를 해골의 골짜기로 형용하고 있읍니다.

이 죽음과 맞선 골짜기에서 헤어나기 위하여 우리의 할 일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山 꼭대기로 기어오르는 일만이 남아 있읍니다. 山 봉우리가 있는 데로 찾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생각나는 몇몇 山 봉우리같은 이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五山 땅 한 구석 공공 열어붙은 학생들의 오름 뚝을 의고치로 짜내는 거룩한 모습이 있었읍니다.

또한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방아쇠를 당기어 드디어 목숨을 때앗은 동족인 청년의 행동을 용서하며 손을 높이 든 「인도」의 혼 마하트마. 잔디. 오— 그 높이 솟은 봉우리.

낙동강 한 줄기에 민족의 운명이 대동대동 매어달려 있을 때 펜을 종으로 바꿔주고 그 줄기

에도 무거운 총을 울러매고 포항 전선에 붉은 피를 아낌없이 뿌려 준 어리디 어린 학도들이
피워 준 수 없는 꽃봉오리들.

자기의 아들 들날 몽땅 죽여버린 원수를 용서하고 자식으로 데려다가 키워주며 드디어는 순교
한 四천년 우리 역사의 화폭 위에 환하게 핀 꽃을 그려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흐뭇해지는 그
분 그 높은 山봉우리 손 양원 목사.

山봉우리에 올라서야 갈 길이 보이겠기에 지금도 우리는 이 아쉽고도 아쉬운 봉우리들을 우러
러보며 걸음을 옮겨 갑니다.

個人の 자람도 그랬고 민족의 성장도 그랬고 국가의 융성도 그랬고 또한 문화의 높이도 봉우
리에 섰을 때였던 것을 우리의 손에서 잃어지는 글들에서 족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홍안령 山 마루에 고향소리와 함께 더벅머리 휘날리며 역센 팔뚝 높이 들고 기둥같은 양다리
를 大地에 꼭 박고 체노는 장대하고 넓은 이마 굳게 담은 두툼한 입술 때마침 솟아오르는 아침
햇빛에 붉게 물들은 양볼에 빛나는 눈동자가 먼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상에서 우러난 우
리 조상들의 나라를 이 얼마나 적색하고 공명한 나라를 이룩하였던가요.

요동과 한 반도를 양팔에 안고 鵬豆 양 강을 가슴에 품은 白頭의 영봉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자랑은 이어잡니다. 비로봉 높은 꼭대기가 금강 만二천봉을 빛내고 있지 않은가요.

자! 죽을 힘을 다 해서도 山마루에 올라야지. 먼 강과 먼 산, 다녀온 길을 되살피며 앞길을
조감하기 위해서 山에 오르코 싶구나.

흐트러진 오늘의 이 잡초들 속에서 숨 막힘을 면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서로 밀고 때밀